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기호



미국의 작가 레이몬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이라는 단편소설엔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 한 쌍이 등장한다. 그들 부부의 아이가 세상을 뜬 것은 우연한 교통사고 때문인데, 그날은 마침 아이의 여덟번째 생일날이기도 했다.

의 시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것이 뻔한 부부에게 내미는 물병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커다란 도움이 된다. 어쩌면 작가는 그 병을 통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도 모르겠다. 소설 속 아이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물병을 세 개나 먹는 것으로 묘사됐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소설에서 가장 슬펐다. 아이를 잃고 물병을 세 개나 먹을 수밖에 없는 엄마. 그녀의 허기.

다. 이것은 예의를 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과연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용산참사에 관련된 법정에 피박피박 참석한 어느 한 후배작가의 글을 보면, 용산역세권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사의 이익은 1조4천억원이고, 조합원의 이익은 1천8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막대한 이익을 위해서 권리금과 시설부채비 포함 2억6천만원이 투자된 음식점 주인에게 이주 보상비로 5천만원이 나왔고, 1억2천만원이 들어간 중국집 주인에게 6천만원을 주겠다고 나가라고 했다.

고 치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장례식 전전 날엔 역시 사실을 통해 희생자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다 숨진 사람들임을 강조했다. 사실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순 없으나, 정말 이지 꼭 누구인지 알아내어 이름 석 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싶은 심정이다.

엇그제까지 평범한 중국집 주인이었고, 갈비집 주인이었던,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들은 그래서 이렇듯 생경한 '전철연'에 가입했고, 아내의 귀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배를 걷어차는, 강제 용역들에 맞서 망루에 올라갔다. 그들이 사고(이 단어는 쓰고 싶지 않으나, 참고 쓰다)로 죽었다. 남은 가족들은 그 죽음이 억울해, 희생자들을 병동고에 보관한 채 일 년 남짓 거리에서 싸워왔다. 그리고 끝내, 어쩌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재개발조합 측과 합의를 하게 되었다.

아이와 잃고 물병을 세 개나 먹은 소설 속 엄마와는 같을 수 없겠지만, 유가족들이 받은 합의금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어떤 비탄한 아픔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과연 '때를 써서' 받은 돈처럼 보이는가? 그 돈이 과연 금액으로, 1인당 얼마 하는 식으로, 셈할 수 있는 돈으로 보이는가?

우리가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건 속으로 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그 노력 다음에, 우리는 어렵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최소한 침묵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특히 그렇다. 그것이 아마도 때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 위기론'에도 손놓은 지역 정치권

지금 광주와 전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저 암담할 뿐이다. 답답할 따름이다.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던 건설·조선업이 힘을 잃었고 핵심 축인 금호차이어와 금호산업마저 위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다.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구조조정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여기에 기아자동차까지 파업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지역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다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에 포진했던 지역 인맥도 사실상 몰락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처리과정에서 F1경기장 건설,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설립 등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체감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할 나위 없다. 지역 숙원사업의 예산 삭감, 중앙부처의 지역 인맥 위축 등은 예견됐다. 시골 광주·전남의 동력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이기는 이 지역의 기업·혁신도시 조성은 물론 첨단과학도시 도약에 치명타가 될 게 분명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남 위기론'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지역정치권은 손을 놓고 역으로 지방선거에만 열안이 돼있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이나 현안 예산에 대한 추경 반영, 중앙부처내의 지역 인사 확대 등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려는 자세는 엇보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지역발전과 밀접한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요직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거의 없

오죽 했으면 박광대 광주시장이 의원들에게 '호남 위기론'의 실상을 설명했겠는가. 지방선거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역의 실상과 현안을 평가는 본연의 일이 더 급선무다.

일자리 창출 없인 광주·전남 미래 없다

광주·전남지역 인재 대부분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주요 대학 졸업자 가운데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학생의 70%가량이 직장을 찾아 광주·전남이 아닌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떠난 것이다.

지난 1년 새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광주·전남에는 괜찮은 일자리 1천여 개가 사라졌다고 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인재 유출의 가속화는 당연한 현상이다.

광주일보사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의 주요대학의 지난해 2월 졸업 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 기계시스템학부의 경우 취업률은 88.5%에 달했다. 최근 청년 실업난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취업률이다. 하지만 취업자 대부분이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 곳은 광주·전남이 아닌 수도권 등 타지역이다. 고향에 정이 없고 싶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달픈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취업자의 대부분은 고향에서 대기업엔 커녕 '괜찮은 중소기업'조차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재유출은 기업투자 기피→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서 보듯이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의 기업유치와 미래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세종시가 기업은 물론 인재마저 쏠아간다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일과 같은 골판지 같은 세종시에 올인하기 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박정환



얼굴 예쁜 것보다 피부 좋은 게 더 각광받는 요즘, 화장하지 않고도 티 없이 깨끗하고 환한 소위 '생얼 피부미인'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생얼 미인이 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색소침착, 다크써클, 자외선 노출 후 발생하는 광노화 현상 등 피부 톤을 얼룩덜룩하고 어둡게 만드는 여러 색소 질환들이다. 그중 기미는 한번 생기면 좀처럼 치료되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악화되어만 가는 여성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생각이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6 레이저 토닝은 레이저 기미치료의 대표 선수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 치료로 유명하다. 시술 시간도 5분 내외로 짧고, 연고 마취가 불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치료 후 붉어짐도 30분 내외로 짧아 진정 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시술 당일도 화장이나 세안이 가능하다. 치료 초기에는 1주일 간격으로 7~8회 정도 치료하게 되며, 기미의 거의 80% 이상이 흐려져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준까지 없어진다. 많이 좋아진

기미 치료로 '생얼 피부미인' 되기

로 꼽힌다. 기미는 일상적으로 눈이나 뺨, 광대 뼈를 따라 생기는 갈색반을 말한다. 출산 후나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주로 나타나며, 멜라닌 색소가 피부의 표피나 진피에 침착돼 생기는 색소성 질환으로 드물게 남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후부터는 유지치료를 2~3주나 1~2달 간격으로 추가적인 시술을 받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1회 치료시 효과는 시술 후 약 3~7일 후 확인이 가능하다.

조깅이나 축구,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들이나 외근이 잦은 남성들에게서 기미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기미가 있으면 깔끔한 인상을 주기가 어려운데, 얼굴색이 고르지 못하고 피부색이 칙칙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미가 눈 밑에 집중적으로 생기면 피곤해 보이거나 무기력해 보인다.

C6 레이저 토닝과 함께 미백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IDR 약물치료'가 그것이다. IDR 치료는 폴라켄 합성 및 색소제거 효과를 내는 약물과 미량의 보충제를 기미 부위에 투입시키는 방법이다. 약물이 표피에 주입돼 C6 레이저토닝으로 파괴된 멜라닌 색소의 제거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 약물은 미세한 주입 기구를 통해 '톡톡 두드리듯' 기미 부위에 직접 투입되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 피부마취도 필요 없다. 또한, IDR 치료는 보습력이 뛰어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 건조한 피부에 적용하기 좋고, 잔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비피부과 원장〉

자살실태자 80%가 재시도... 예방노력은 미흡

우리 사회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살이다. 한해에 무려 1만 3천여 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나라. 그래서 자살률로는 OECD 국가 중에 부끄러운 1위인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그걸 실천하는 게 한시가 급한데도 너무나 무관심한듯해서 안타깝다.

일반인에 비해 30~40배 높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자 사후개입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고 그런 게 있는조차 모를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생명의 전화나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사후개입'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자살 실패자가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상담하고 관리하며 주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역할이 그것이다.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기고

김종오



광주는 위기이다! 혹자는 반문할 것이다. 광주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고 광주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고 되물어 올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 두드러지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상향, 이명박 정권 등장 후 심화되는 차별과 소외정책은 지역민의 가슴 속에서 꺼진 적 없었던 투지와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려 갔고 있다.

기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 광주에 절실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새로운 일자리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취업활동 인구수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지역의 리더가 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와 통계를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봐도 광주가 처해 있는 침체와 낙후의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만 봐도 광역시들 중에서는 광주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유치이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기업의 진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기의 광주, 누가 구할 것인가?

가 최하위이고 도들 중에서는 전남이 최하위이다.

광주 총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자동차와 삼성 광주 공장에 대해 우리는 충분한 협력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기업유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광주의 어음부도율은 전국 평균의 13배에 달한다. 또한, 07년 납세액 기준으로 광주의 취업자 63만 명 중에서 월 250만 원 이상 소득근로자는 11만 6천 명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질서, 따뜻한 복지공동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이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훈련된 일꾼들이 광주에 필요하다.

이 지표를 다르게 설명하면 11만 가구의 나머지 취업자 가구는 월급만으로 생활이 곤란하고 250만 원 이상 받는 11만 명의 월급이 광주시 유통과 서비스업 전체의 종자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이러한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를 들어본 사람 찍고, 우리 동네 사람 찍고, 아는 형님 찍는 지방선거가 되어서는 광주의 미래도 지역의 희망도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맞이하는 2010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2010년 지방선거가 바로 그 변화의 계

광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 줄력 있는 일꾼을 만드는 손은 시민의 손이며, 구대의 판을 갈아엎을 힘은 시민의 힘이다. 위기의 광주를 구할 사람은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이다. 〈前 SK그룹 상무〉

◇ 채택된 원고의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의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인류 최초의 여자는 하늘을 다스리던 제우스가 만들었다. 그는 아프로디테의 미, 헤르메스의 설득력, 아폴론의 음악이라는 재능을 여자에게 주고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 보냈다고 한다.

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되풀이하고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국정용 격랑의 바다로 몰아넣은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Pandora)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와 결혼한다. 그는 형인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제우스와 그의 선행되어야 하는'는 가치' 총출하고 있고, '약속의 정치'와 '국익의 정치'가 부딪힌다. 여권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 분할은 안 된다고 부르

지만, 야권과 비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정치의 기본은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

판도라의 희망



판도라는 온갖 나쁜 것이 쏟아져 나오자 막판에 상자를 뚜껑을 열었을 때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눈물, 범죄 등 무수한 재厄(災厄)이 쏟아져 나왔다. 인류가 편할 날이 없게 해서 편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논리다. /김주정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판도라는 온갖 나쁜 것이 쏟아져 나오자 막판에 상자를 뚜껑을 열었을 때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눈물, 범죄 등 무수한 재厄(災厄)이 쏟아져 나왔다. 인류가 편할 날이 없게 해서 편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논리다. /김주정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